



# “앨범 전곡에 애정 담아 즐겁게 준비했죠”

### EXID 데뷔 4년만에 첫 정규앨범 ‘스트리트’ 발표 ... 멤버 엘리 프로듀서 참여해 눈길

“신곡이 ‘위아래’만큼 사랑받길 바라요. 데뷔 4년 만에 첫 정규 앨범이니 꿈은 크게 가지라고 13곡 중 절반만 ‘차트 쏠세우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5인조 걸그룹 이엑스아이디(EXID)가 여름 걸그룹 대전의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1일 열린 정규 1집 ‘스트리트’(STREET) 쇼케이스에서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음원사이트에 공개된 1집은 이엑스아이디가 2012년 데뷔한 지 4년 만에 처음 발표하는 정규 앨범이다.

2014년 ‘위아래’로 차트 ‘역주행’ 돌풍을 일으키며 대세로 떠오른 이엑스아이디는 ‘아예’와 ‘핫핑크’까지 잇달아 히트시키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쇼케이스가 열린 곳은 데뷔 이후 2년간 절치부심하던 이엑스아이디가 마지막 앨범이란 생각으로 ‘위아래’를 발표했을 당시 무대.

정화는 “그때는 ‘위아래’란 곡이 사랑받을 줄 상상도 못했다.”

‘위아래’ 활동을 이곳에서 시작해 이번 앨범도 ‘위아래’만큼 사랑받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고 웃었다. 헤린도 “나락에 떨어질 뻔할 때 기회를 잡은 곡이 ‘위아래’여서 이곳이 행운의 장소인 것 같다. 초심으로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멤버들은 요즘 아이돌 그룹으로는 드물게 13곡이 수록된 정규 앨범을 내 애착이 강했다.

작곡가 신사동호랭이와 함께 앨범 프로듀싱을 맡은 엘리는 “4년간 디지털 싱글 4장과 미니앨범 2장을 냈다. 정규앨범을 내는 데 4년이 걸렸다”며 “뜻깊은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정화는 “13곡 모두 심혈을 기울여 작업해 열 손가락 까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13곡이 우리에게겐 그렇다. 버릴 곡이 없는 앨범”이라고 자신했다.

하나는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즐거웠으면 됐어’인데 이번 앨범도 즐겁게 준비했다”며 “많은 분이 우리 노래를 듣고 그런 기운이 전해져 즐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앨범에는 여러 방송을 통해 입증된 솔지와 하나의 가장력과 다른 가수의 앨범에도 프로듀서로 참여한 래퍼 엘리의 작사·작곡 재능이 고스란히 담겼다. 멤버들은 “우리 팀의 강점은 프로듀싱 재능이 있는 엘리”라고 강조했다.

엘리가 작곡에 참여한 타이틀곡 ‘엘라이’(L.I.E)는 ‘위아래’나 ‘아예’와 달리 음악적인 변화가 눈에 띈다.

이번 후 남자의 거짓말로 인해 생긴 감정 변화를 담은 곡으로 멤버들은 의심, 슬픔, 미움, 짜증, 분노 등 감정 변화에 맞게 장법을 구사했다. 귀여운 듯 색

시한 포인트 안무는 ‘양탈 춤’이라고 이름 붙였다.

엘리는 “기존 곡들이 중독성 있는 후크(후렴구)가 강한 노래였다면 ‘엘라이’는 멜로디 위주 곡으로 강한 퍼포먼스를 더해 변화를 꾀했다”고 소개했다.

멤버들은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때가 된 만큼 의도된 변화라고 입을 모았다.

하나라도 정화는 “이쯤 되면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때”라며 “이엑스아이디도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할 수 있구나’란 말을 들으면 목표의 반은 성공했다고 여긴다”고 했다.

이 밖에도 앨범에는 알앤비(R&B) 곡 ‘데려다줄래’, 답하우스 장르인 ‘크립’, 처음 선보이는 팬송인 ‘여름, 가을, 겨울, 봄’ 등이 수록됐다.

하나의 솔로곡 ‘헬로’와 솔지의 솔로곡 ‘3%’, 헤린과 정화가 듀엣한 ‘남남점점’까지 멤버별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곡도 눈에 띈다.

헤린과 정화는 ‘남남점점’에 대해 “공복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애환을 담은 곡으로 ‘밥 먹었다고 둘러대지 말고 쟁겨먹어라’는 노래이다. ‘뽕뽕’ 소리가 많이 나는 신나는 곡”이라고 말했다.

멤버들은 1위 공약으로 2배속 댄스를 내세웠다. 헤린은 “무대에서 2배 속으로 댄스를 선보이겠다”며 “우리만의 색깔이 담긴 곡들이 많이 사랑해달라”고 당부했다.



# 반려동물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 김국진·허경환 콤비 ‘마이펫연구소’

“제가 ‘치와와’ 닮았잖아요. 진짜에 동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정도로 프로그램과 잘 맞습니다.”

다음달 2일 처음 방송하는 스카이팩트 새 예능프로그램 ‘마이펫연구소’는 사람만큼 복잡한 반려동물의 행동과 심리를 관찰하고 분석한다. 반려동물의 특이 행동의 원인을 밝히고, 반려동물별 맞춤 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지난 31일 오후 서울 상암동 DDMC 빌딩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는 출연자 중 개그맨 김국진, 포미닛 권소현, 봉만대 영화감독 등이 참석했다.

마이팩트파크의 메인 MC를 맡은 김국진은 자신의 별명 ‘치와와’를 언급하면서 프로그램과 ‘찰떡궁합’임을 과시했다. 2010년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유기준 ‘덕구’를 입양한 김국진은 반려인으로 이름을 알렸다.

공동 진행을 맡은 후배 개그맨 허경환과의 호흡에 대해서는 “요즘 가장 잘나가는 후배고 진행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처음 프로그램을 같이했는데도 호흡이 상당히 좋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허경환은 공개한 반려견 ‘오복이’와의 에피소드를 앞으로 방송에서 풀어내며 반려인들의 공감을 끌어낼 예정이다. 두 MC와 함께 프로그램을 이끄는 고정 패널로는 봉만대 감독과 걸그룹 포미닛의 권소현이 ‘개어맘’으로 등장한다.

김준수 제작 PD는 “사회 이슈화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쟁점을 스튜디오에서 다루면서 반려동물과 인간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돌아온 한예진

### SBS ‘애미록’서 신동엽과 공동MC

축구선수 기성용과 결혼한 뒤 방송을 떠났던 배우 한예진(사진)이 3년 만에 방송에 복귀한다.

이달 말 방송되는 SBS TV 파일럿(시범 제작) 육아 예능 프로그램 ‘애미(愛美)록’을 통해서다.

이 프로그램의 홍보사 터릿룩은 1일 “신동엽과 한예진이 이달 말 방송되는 SBS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다시 쓰는 육아일기-애미록’의 MC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한예진은 2013년 기성용과 결혼한 뒤 ‘힐링캠프’에서 하차하며 방송 활동을 중단했고, 지난해 딸을 낳았다.

제작진은 “신동엽과 한예진은 연예계에서 입담과 진행에 있어서는 놓을 수 없는 대표 MC”라며 “예리하고 날카롭게 출연자들의 마음을 읽으면서도 편안한 진행으로 환상의 호흡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X맨’, ‘아심만만’, ‘힐링캠프’ 등을 만든 라승영 PD가 연출을 맡는다.

### TV 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국정 PD의 자연 담은 한기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30 KBS 뉴스	00 TV소셜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	00 출발 드림팀 2(재)	00 청사 55주년 특별기획 (육중화)(재)	00 닥터 365 05 토크콘서트 화통(재)
12	00 KBS 뉴스 12	0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재)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문벌 로맨스)(재)	00 SBS 12 뉴스 50 닥터365 55 남도의 보물 100선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킹특선 <보물섬> 55 별별가족(재)			20 자연의 신비, 슈퍼센스 55 TV블로그 토크쇼
2	00 가요무대(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20 텔레몬스터(재) 25 드림주니어 스페셜 55 텔레몬스터(재)	00 세상발전 유레카 55 닥터365
3	00 KBS스페셜(재) 55 튜튼생활제조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싸이월드(재) 55 모두모두 쇼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안녕! 괴물개발 30 터닝메카드 W	00 MBC 이브닝뉴스	00 꼬마해너 봉니와 해너특공대 30 SBS 뉴스투데이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남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법상	50 4개국 올림픽 국가대표축구대회 <대한민국 vs 나이지리아>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토크쇼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5 일일연속극 <별난 가족>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KBS 스페셜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마스터 - 국수의)	00 수목미니시리즈 (문벌로맨스)	00 드라마 스페셜 <판타라>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행복100세, 건강한 선택)	10 해피 투게더	10 라디오스타	10 자기야
12	30 특집 대한민국 창의의 힘 (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MBC 뉴스 24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세계전문 아틀라스 <순다열도의 대자연 칼리만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단종박 크림수프와 프렌치 토스트) 11:20 세계테마기행 (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통일의 길 12:40 역사채널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13:40 오 마이 미래 2035 13:50 이말 스페이스 정글 14:00 코코몽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20 꼬마 철학자 휴고 15:35 호기심나라 오기도 - 중세로의 시간여행, 입디나 16:00 골디와 친구들(재)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똥뽕뽕 뽕뽕이(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뽕뽕뽕 뽕뽕이(재) 18:00 생방송 퓌키! 보니하니1~4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산다 20:40 다큐오늘 <세탁 공장의 뜨거운 겨울>	20:50 세계테마기행 <지중해의 푸른 전설, 몰타 4부 - 중세로의 시간여행, 입디나> 21:30 한국기행 <여행의 품격 4부 - 당신 꿈은 어디에 있나요?>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부모님 전상서 불효자 윤디나>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재미에 살고 재미에 죽는다, 칠없는 아빠 마이클> 24:05 역사채널 8(재)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1.2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일 (음 4월 27일 乙卯)

<b>子</b>	48년생 짐실패하면 실행하라. 60년생 순간의 오판을 주의하라. 72년생 자신의 진짜 속내를 알아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84년생 다자 관계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고뇌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3, 10	<b>午</b>	42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충동이 있을 수 있으니 매사에 삼가는 것이 정답이다. 54년생 재고할 필요가 있느니라. 66년생 실행을 보류하고 자중하며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78년생 전환점을 마련할 만한 단계에 임하라. 행운의 숫자 : 22, 07
<b>丑</b>	49년생 주된 골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61년생 고정 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자. 73년생 너무 쉬워 땅 밟고 헤엄치는 격이다. 85년생 번거롭다기보다 가지않아도 치워 버려도 무방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20, 44	<b>未</b>	43년생 목표가 분명하다면 재물을 부른다. 55년생 일반적이지만 못하다면 어느 누구에게나 쉽게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67년생 더불어 어울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79년생 관련되어 있지 않고 제각각이다. 행운의 숫자 : 11, 69
<b>寅</b>	50년생 핵심 가치에 충실 하는 것이 생산적임을 일라. 62년생 부작용이 속출할 수도 있으니 예의 주시하라. 74년생 중도가 가장 무방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86년생 원격 조종도 관측은 방법이다. 행운의 숫자 : 42, 48	<b>申</b>	44년생 희망한 기운의 진행이 계속되는 윤이니 다소 미심쩍은 점이 있더라도 개의치 말고 임하라. 56년생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 발생한다. 68년생 하나 씩 전전을 보여준다. 80년생 길사가 발생하면서 행운이 깃든다. 행운의 숫자 : 75, 38
<b>卯</b>	51년생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63년생 상호작용이 아아 유익하다. 75년생 본래도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느니라. 87년생 예상했던 구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난해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인식하라. 행운의 숫자 : 86, 77	<b>酉</b>	45년생 외형이나 수효와는 전혀 무관하니 소신을 갖고 일관성을 견지함이 바람직하다. 57년생 집중할 필요가 있다. 69년생 상대가 소극적이려면 굳이 강권할 필요가 없다. 81년생 허심탄회한 심경의 토로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33, 68
<b>辰</b>	40년생 한결같이 차이가 없다. 52년생 급변하고 있으니 신속하게 대처하라. 64년생 표면은 볼 품 있으나 상당히 실속이 있을 것이다. 76년생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이 생기면서 급변전될 수도 있다. 88년생 소강상태다. 행운의 숫자 : 52, 43	<b>戌</b>	46년생 적격이 아니니 미련을 버리는 것이 옳다. 58년생 어설피게 하느니 차라리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낫다. 70년생 예상 밖의 판국이니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 82년생 가시적인 상황만을 전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행운의 숫자 : 23, 04
<b>巳</b>	41년생 험든 와중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춰온다. 53년생 제대로 살펴보고 임해야 할 것이다. 65년생 종합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려도 된다. 77년생 대법하게 처리하는 것도 곤란한 일이다. 89년생 원칙대로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 55, 15	<b>亥</b>	47년생 쓸 곳은 많은데 없어서 곤혹스럽기 그지없다. 59년생 머지않아 성사될 것이니 조조함이나 노파심일망 버려도 된다. 71년생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다면 최상이다. 83년생 안정 궤도로 진전하게 되는 길목에서 있다. 행운의 숫자 : 85, 5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형” ☎010-9790-8237